

# 국무총리 당부말씀

- 제404차 민방위 날 민방공 대피훈련, 8.23(수) -

- 우리 한반도는 **안보불안**이 상시화 돼 있는 지역임. 이런 상태가 무려 70년 동안 계속됨. 계속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보불안이 **고조되고** 북의 군사적 위협이 **고도화**되는 상황임.
- 이렇게 안보불안이 상시화, 고조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런 상황에 대해 익숙해지고,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능숙해져야 옳음.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함. 익숙해지고 대처에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불안에 **둔감**해지고 대처에 **무심**해지는 것이 현실임. 이렇게 되면 더 큰 위험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오는 꼴이 될 것임.
- 을지연습, 특히 민방위 대피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상시화 되는 안보불안에 우리가 좀 더 **능숙하게**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**익숙**해지자는 취지일 것임.
-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 이런 훈련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실전처럼 참여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**행동요령**을 숙지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**능숙하게** 대처할 수 있도록 몸에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함.
- 우리가 쉬운 말로 안보불감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심각성은 그렇게 한 두 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님. 막상 일이 닥쳤을 때는 지금처럼 무심하고 둔감한 사람들이 훨씬 더 허둥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임.

- 제가 젊은 나이에 일본 도쿄에서 근무한 적이 있음. 그때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으로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녔고 저와 제 아내는 직장을 나가거나 전업주부를 했는데, 조그만 지진에도 아이는 능숙하게 대처하는데 저와 제 아내는 어쩔 줄을 몰랐음.
-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음.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사시에 대처하는 게 천양지차로 다름.
- 이번 민방위 대피 훈련 포함해서 을지연습에 최대한 진심으로 참여 하셔서 내가 유사시에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고 내가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상시적으로 알기 시작 하는 그런 2017년 을지연습이 되기 바람.